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이인선* · 최지현**

초 록

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폭력 유형에 따라 별개의 연구로 진행되어 왔으며 여러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의 중복피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은 다른 유형의 폭력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으며, 여러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아동은 한 가지 유형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동에 비해 그 피해가 더 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폭력 중복피해 실태와 중복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취약 요인, 중복피해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폭력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두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과 관련된 취약요인, 중복피해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성별, 학교성적, 부모의 방관적 양육태도가 중복피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심리적 어려움을 더 높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중복폭력피해 경험, 아동학대, 학교폭력, 또래폭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교신저자, ziuum0113@hanmail.net

I. 서 론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연령 시기에 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며, 청소년기 폭력의 경험은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단기적, 장기적으로 여러 발달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Wordes & Nunez, 2002). 특히 청소년기는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면서 점차 가정 외 또래와의 관계가 확대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로(Ryan, 2001;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 중 가정 내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가정 외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각각의 피해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비행과 폭력 등의 문제행동, 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중독, 학교 부적응과 학업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박은주, 최말옥, 2014; 정익중, 2008;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Cicchetti & Carlson, 1989; 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 이와 비슷하게,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신체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 및 불안, 비행과 공격성, 학교부적응과 학업저하 등을 겪을 수 있다(김재엽, 이근영, 2010;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김현숙, 2013; 이은희, 김남숙, 2011; Hong & Espelage, 2012; Kochenderfer & Ladd, 1996; Rigby, 2000; Ttofi & Farrington, 2008).

그런데 최근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환경체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한 가지 유형의 학대나 폭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여러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일부 아동에게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Finkelhor, Ormrod & Turner, 2007; Saunders, 2003). 예를 들어, Finkelhor et al.(2007)은 전국의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2,030명을 대상으로 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약 22%가 일년에 4개 이상 유형의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의 중복 피해에 관한 국외 선행 연

구들은 폭력에 한번 노출된 아동은 또 다른 폭력의 피해로 이어질 수 위험이 높으며, 여러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Turner, Finkelhor & Ormrod,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복피해가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아동·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고위험 아동·청소년 집단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 동안 폭력에 관한 연구는 폭력 유형별로 별개의 연구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폭력의 중복피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국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복폭력피해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며, 윤명수와 조혜정(2008)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중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 유형인 가족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에서 또래에 의한 폭력의 중복피해 실태와 중복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취약 요인, 중복피해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복피해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개입이 중복피해의 위험과 예방에 주목해야함을 강조하고, 중복피해에 대한 개입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임상적 실천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

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한가지 유형의 폭력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여러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의 폭력을 별개로 연구하는 것은 다른 폭력 피해 경험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이나 축적된 영향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폭력 연구는 중복적인 피해경험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Finkelhor et al., 2007; Saunders, 2003).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며, 국외에서도 2000년대 들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복피해에 관한 국외의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여러 유형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아동·청소년기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폭력을 당한 아동은 또 다른 폭력의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복피해에 관한 연구들은 중복피해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발달단계에서 부정적인 후유증과 연결되며, 한 가지 유형의 폭력을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보다 더 심각한 징후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Elliott, Alexander, Pierce & Richmond, 2009; Finkelhor et al., 2007; Finkelhor, Shattuck, Turner, Ormrod & Hamby, 2011; Ford, Elhai, Connor & Frueh, 2010; Gustafsson, Nilsson & Svedin, 2009; Saunders, 2003; Turner et al., 2010).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예를 들어 Finkelhor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전국 데이터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2,030명을 대상으로 중복피해경험을 연구한 결과, 응답자의 약 22%가 일년에 4개 이상 유형의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중복피해는 불안, 우울, 분노/공격성의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국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4,053명 대상으로 이전의 폭력 경험을 조사한 Turner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66%가 1개 유형 이상의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30%는 5개 유형 이상의 폭력 피해를, 10%는 11개 유형 이상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복피해의 영향을 조사한 Holt, Finkelhor and Kantor(2007)와 Elliott et al.(2009)의 연구는 중복피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Holt et al.(2007)은 초등학교 5학년 689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러 폭력유형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폭력피해 경험이 낮은 집단, 학교폭력피해 집단, 중복피해 집단으로 구분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복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심리사회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lliott et al.(2009)에서는 아동기의 여러 가지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이 성인인 대학생이 된 경우에도 학업적,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유형의 학대나 폭력 피해 경험이 어떻게 다른 유형의 폭력의 재피해로 연결되는지는 여러 매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낮은 자아

존중감, 학습된 무기력감, 왜곡된 인지 등과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또 다른 폭력의 피해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Finkelhor, Ormrod, Turner & Holt, 2009; Mannarino & Cohen, 1996). 재피해를 설명하는 또 다른 매커니즘으로,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 분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고 되고, 심리적 문제는 다시 재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Cuevas, Finkelhor, Clifford, Ormrod & Turner, 2010).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나 보호자가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아동은 가정 외에서 또 다른 폭력의 재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Finkelhor et al., 2009). 반면, 동일한 유형의 학대나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모두 다른 학대나 폭력의 재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며 차이가 존재하는데, 아동의 개인적 특성, 가족 요인,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9).

2.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본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가지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 또는 아동학대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이며, 다른 한 가지는 아동학대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매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본 연구들은 일관되게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결과를 보이고 있다(Baldry, 2003; Lereya, Samara & Wolke, 2013). 이에 대한 국내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부모의 학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은주, 최말옥, 2014; 정익중, 2008; 정혜원, 박성훈, 2010). 예를 들어, 김정옥과 박경규(2002)의 연구에서 일반 고등학생 54명과 폭력 가해자로 수감되어있는 비행청소년 50명을 조사한 결과, 비행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더 많이 경험했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학생 3,449명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유형,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신혜섭(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슷하게 정하은과 전종설(2012)의 연구에서는 다체계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요인으로 부모학대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왜 또래에 의한 폭력과 같은 또 다른 폭력의 재피해를 당하는지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한가지 이론을 학습된 무기력감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Schwartz, Dodge & Cowie, 1993).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은 공포나 다른 감정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고 또래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또래로부터의 소외나 폭력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Shields & Cicchetti, 2001).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의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폭력을 당하여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낮고 부모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에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학대 부모는 자녀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방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드러냄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가 강압적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아동은 또래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매커니즘을 뒷받침하고 있다(Unnever & Cornell, 2004). 아동학대가 학교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아동학대가 우울증, 공격성의 증가나 인지학습 능력의 저하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이나 또래로부터의 소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박은주, 최말옥, 2014; 정익중, 2008).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는 소수지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국외 연구로는 Duncan(1999)의 연구가 있다. Duncan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둘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 아동학대만 경험한 집단, 학교폭력만 경험한 집단,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의 심리적 적응을 비교한 결과,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성인기에 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윤명숙과 조혜정(2008)

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윤명숙과 조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527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경험을 조사하고, 폭력경험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6.6%가 가정폭력(부모폭력 목적 경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학교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폭력경험 정도에 따라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가정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한 결과, 중복 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에 전반적으로 우울과 음주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본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 또는 아동학대가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 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결과나 후유증 중의 하나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와 경로를 분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이 가정 및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복적인 피해 경험과 관련된 취약요인과 중복적인 폭력 노출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으로, 분석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3차년도(2012)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2010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7차년도에 걸쳐 조사되며, 2010년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을 추적조사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3차년도인 2012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이들 사례 중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와, 통제변수 중 하나인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양부

모 및 한부모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인 조손가구, 조부모와 한명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기타 형태의 가구를 제외하고 최종 2,126사례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및 방법

1) 폭력피해 경험

폭력피해 경험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학대와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하였다.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님(보호자)이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낸다’,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 한다’,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은 적이 있다’, ‘심한 말이나 욕을 한 적이 많다’의 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응답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해당 항목 경험이 없는 것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해당 항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변환하고, 4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항목 경험이 있는 사례를 아동학대 경험 사례로 분류하였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심한 욕설, 심한 놀림, 왕따, 폭행, 협박, 금품갈취, 성폭력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연구에서는 각 항목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를 학교폭력피해 사례로 분류하였다.

2)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사는 것이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자신의 삶의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 장점이 많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 쓸모없는 존재로 느낌, 실패자라고 느낌,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5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우울은 기운이 없음, 불행하다고 생각함, 죽고 싶은 생각이 듦,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음,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음 등의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3) 개인 및 가족 특성

개인 특성은 성별과 성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때 성적은 연구대상자들이 11개 과목 각각에 대하여 ‘매우 못했다(1점)’에서 ‘매우 잘했다(5점)’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한 11개 항목의 측정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성적 평가가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였다.

가족 특성은 연간 가구 소득, 부모 학력, 가족 구조, 방관적 양육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연간 가구 소득은 조사대상인 청소년이 아닌 부모가 응답하는 가구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부와 모 각각 측정하였으며, 결과 분석에서는 부와 모의 학력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방관적 양육은 부모의 일상생활 및 의료적 무관심에 대하여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부모님이 ‘자신을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함’, ‘몸이나 옷 등이 깨끗하도록 신경 씀’,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값의 평균이 높을수록 방관적 양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폭력 피해 경험 및 중복 폭력 피해 경험을 파악하고, 개인 및 가족 특성과 폭력 피해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폭력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폭력피해 경험 집단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F검정 및 공변량분석(ANCOVA)을 병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개인의 특성에서는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 50.3%, 49.7%로 조사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동일한 수준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성적 평가는 평균 3.00이었다.

가족 특성에서 가구 소득을 보면, 연구대상자의 연간 가구 소득 평균은 약 4,760만원이었고, 연간 가구 소득이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715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간 2,000만원 미만이 161명(7.7%)로 가장 적었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부 학력, 모 학력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40.9%, 54.2%로 가장 많았고, 부 학력의 경우 전문대 이상인 사례가 55.4%, 모 학력은 전문대 이상인 사례가 42.6%로 부의 학력이 모의 학력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 구조에 있어서는 부와 모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양부모 가구가 90.5%, 한부모 가구가 9.5%이었다. 방관적 양육은 최저 1점에서 최대 4점의 범위 중 연구대상자의 평균은 1.84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2,126)

구 분			명	%
개인 특성	성별	남학생	1,069	50.3
		여학생	1,057	49.7
	주관적 성적(1~5)		평균 : 3.00, 표준편차 : 0.86	
가족 특성	연간 가구 소득 (평균 : 4,760만원, 표준편차 : 2,712)	2000만원 미만	161	7.7
		2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43	30.8
		4000만원 ~ 6000만원 미만	715	34.2
		6000만원 ~ 8000만원 미만	332	15.9
		8000만원 이상	240	11.5
	부 학력	중학교 졸업	73	3.7
		고등학교 졸업	818	40.9
		전문대 졸업	203	10.2
		대학교 졸업	806	40.3
		대학원 졸업	98	4.9
	모 학력	중학교 졸업	65	3.2
		고등학교 졸업	1,109	54.2
		전문대 졸업	208	10.2
		대학교 졸업	626	30.6
		대학원 졸업	37	1.8
	가족 구조	양부모 가구 (양부모+자녀)	1,923	90.5
		한부모 가구 (한부모+자녀)	203	9.5
	방관적 양육(1~4)		평균 : 1.84, 표준편차 : 0.55	

2. 연구대상자의 폭력피해 경험 실태

연구대상자인 중학생이 가족 및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동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898명으로 전체의 42.2%였다. 항목별로는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을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냈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았다’는 응답이 19.5%로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경험하는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보다는 정서적인 학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78명으로 전체의 8.4%였다. 항목별로는 심한 욕설이 4.2%,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가 4.0%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이 가정과 학교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실태를 폭력의 경험 정도에 따라,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이하 ‘피해없음’), 아동학대만 경험한 집단(이하 ‘아동학대’), 학교폭력만 경험한 집단(이하 ‘학교폭력피해’),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하 ‘중복피해’)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2). 피해없음 집단은 전체의 53.9%였으며, 아동학대 집단은 37.7%, 학교폭력피해 집단은 3.9%, 중복피해 집단은 4.5%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지난 1년간 중복폭력피해 경험 실태

(단위 : 명(%))

		학교폭력피해		전체
		없음	있음	
부모로부터의 학대	없음	1,145(53.9)	83(3.9)	1,228(57.8)
	있음	803(37.7)	95(4.5)	898(42.2)
	전체	1,948(91.6)	178(8.4)	2,126(100.0)

3. 개인 및 가족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의 관계

다음으로 개인 및 가족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3).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성적 모두 폭력피해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피해없음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고 중복피해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폭력피해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성적 평가에서는 피해없음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3.10), 다음으로 아동학대 집단(2.79), 학교폭력피해 집단(2.89) 순이었으며, 중복피해 집단(2.60)에서 성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 특성에서는 폭력피해 집단에 따라 방관적 양육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피해없음 집단의 방관적 양육 평균이 가장 낮았고(1.81), 중복피해 집단의 방관적 양육 평균이 가장 높았다(1.90). 이는 방관적 양육이 가정 내의 학대 뿐 아니라 가정 외에서의 폭력피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개인 및 가족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의 관계

		피해 없음 (n=1,145)	아동학대 (n=803)	학교폭력 (n=83)	중복 피해 (n=95)	X ² / F
성별 (%)	남	46.5%	42.1%	5.1%	6.4%	56.790***
	여	61.3%	33.4%	2.7%	2.6%	
주관적 성적 평가(평균)		3.10	2.92	2.89	2.60	15.268***
연간 가구 소득(평균)		4804만원	4750만원	4664만원	4398만원	0.693
부모 교육 수준(평균)		2.89	2.79	2.95	2.74	2.421
가족 구조 (%)	양부모 가구	54.0%	37.9%	3.8%	4.3%	2.336
	한부모 가구	52.2%	36.9%	4.4%	6.4%	
방관적 양육(평균)		1.81	1.88	1.85	1.90	2.896*

* $p<.05$ *** $p<.001$

4. 폭력피해 경험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폭력피해 경험이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 및 가족특성과 폭력 피해 경험을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먼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과 주관적 성적 평가, 가족 특성에서는 연간 가구 소득, 부모 교육 수준, 방관적 양육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주관적 성적 평가가 높은 수준일수록, 가구의 연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방관적 양육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에서는 피해없음 집단에 비해 한 유형이라도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주관적 성적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연간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가 방관적 양육을 하고 있지 않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에서는 피해 없음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집단, 학교폭력피해 집단, 중복피해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주관적 성적 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보호자로서의 방관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폭력피해 경험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피해없음 집단에 비해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중복피해 집단 모두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 및 주관적 성적 평가 수준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나타났다. 또한, 가족 특성 중 방관적 양육은 공통되게 3가지 심리적 적응 변수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폭력 피해 경험에서는 피해없음 집단에 비해 하나라도 폭력피해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에 부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β	t	β	t	β	t
통제변수	개인 요인						
	성별 ¹⁾	-.130	-6.276***	-.091	-4.531***	.200	9.759***
	주관적 성적 평가	.140	6.468***	.205	9.780***	-.072	-3.347**
	연간 가구 소득	.049	2.111*	.061	2.683**	-.036	-1.546
	가족 요인						
	부모 교육 수준	-.054	-2.314*	.000	.014	.006	.278
	가족 구조 ²⁾	-.031	-1.445	-.002	-.111	.014	.673
	방관적 양육	-.250	-11.983***	-.272	-13.461***	.232	11.225***
독립변수 ³⁾	아동학대	-.046	-2.156*	-.111	-5.381***	.143	6.753***
	학교폭력 피해	-.082	-3.946***	-.058	-2.884**	.074	3.580***
	중복 피해	-.090	-4.262***	-.098	-4.802***	.147	7.035***
F		34.215***		50.840***		38.148***	
R ²		.129		.180		.142	
Adj. R ²		.125		.177		.138	

* $p < .05$ ** $p < .01$ *** $p < .001$

주1) 남=0(reference), 여=1

주2) 양부모 가구=0(reference), 한부모 가구=1

주3) 피해 없음=reference

다음으로는 폭력피해 경험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폭력피해 경험 4개 집단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F검정(ANOVA)과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F검정 및 사후검정 결과, 중복피해 집단은 단일피해 집단이나 폭력피해가 없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보였으며, 단일피해 집단은 폭력피해가 없는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적응을 보였다.

폭력피해 경험 집단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추정치를 파악하고자 표 4의 회귀모형과 동일한 변수를 투입한 공변량분석에서는 각 집단 간 종속변수의 평균을 공변량으로 조정하여 그에 따라 변화된 평균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폭력 피해 집단에 따른 심리적 삶의 질의 값을 추정한 결과, 피해없음 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가장 높고, 우울이 가장 낮았다. 또한, 중복피해 집단의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4개 피해 집단 중 가장 낮고, 우울은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 어느 한쪽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심리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특히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폭력 피해 집단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추정된 주변평균

	피해없음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중복피해
삶의 만족도	2.91	2.85	2.61	2.61
자존감	2.87	2.77	2.73	2.65
우울	1.87	2.06	2.12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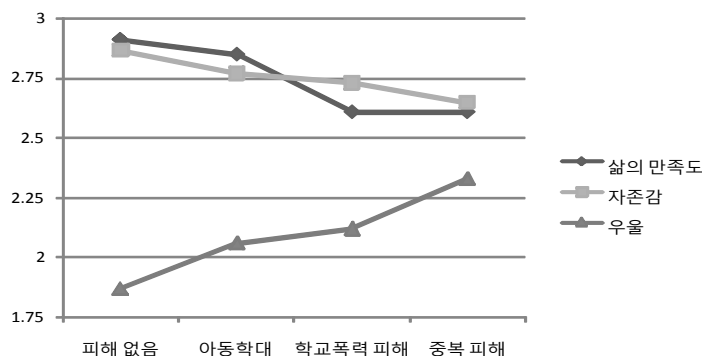


그림 1. 폭력 피해 집단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추정된 주변 평균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3차년도(2012) 자료 중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및 중복피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폭력피해 경험과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 특성의 관련성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 청소년의 42.2%는 가정에서, 8.4%는 학교에서 각각 폭력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중복폭력피해를 경험하는 사례도 4.5%로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의 관련 요인으로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주관적인 성적평가가 낮을수록, 부모가 방관적 양육을 할수록 중복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및 가족 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및 공변량분석 결과에서는 폭력피해를 경험한 집단, 특히 중복피해 집단이 심리적 적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복피해 아동·청소년을 스크리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4.5%가 지난 1년간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크지 않은 수치로 보이지만 조사대상 청소년 20명 중 약 1명은 중복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에서의 폭력 발생이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 체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다른 체계에서도 다른 유형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체계에서 폭력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체계에서도 폭력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취약요인이 있거나 혹은 한 체계에서 경험한 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체계에서 폭력피해에 취약해지는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중복폭력만을 다루었으나, 이들 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성폭력을 경험하는 아동,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하는 아동 등 다양한 양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할 수 있다. 폭력의 중복적 피해 발생 가능성에 주목할 때, 한 영역에서 특정 폭력피해가 발견된 경우 다른 영역의 폭력피해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척도나 도구가 개발되고, 이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전문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유형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재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이나 영역에서의 폭력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예방적 개입 역시 요구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영역에서의 폭력피해를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는 중복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중복피해 집단은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뿐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의 폭력만 경험한 집단에 비해서도 심리적 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복피해 아동·청소년이 한 가지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집단에 비해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더 심각하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윤명숙, 조혜정, 2008; Finkelhor et al., 2007; Ford et al., 2010; Holt et al., 2007; Turner et al., 2010)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복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폭력으로 인한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복피해 아동·청소년의 낮은 심리적 적응 상태는 학교 부적응이나 낮은 학업 성적, 더 나아가서는 학교 중도 탈락이나 다른 유형의 비행 등 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복피해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또 다른 취약요인이 되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있어 악순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들 집단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 특성에서는 부모의 방관적 양육이 자녀의 중복피해 경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의 역할 부족이 가족 내 아동학대와도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 및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 외 체계에서의 여러 유형의 폭력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복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시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사정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부모의 역할과 취약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등 폭력의 각 유형별로 별개로 실태를 파악해왔던 것과 달리,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 중복피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차 데이터 사용으로 인하여 중복폭력피해 집단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성폭력, 지역 사회 폭력 등 다양한 폭력유형의 중복피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가족 및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을 유무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에 따라 폭력의 지속성 정도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살펴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유형의 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중복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다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재엽, 이근영 (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 윤명숙, 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복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95-329.
- 이은희, 김남숙 (2011).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탄력모델을 이용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3(4), 71-89.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1-17.
- 정익중, 박현선, 구인희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정혜원, 박성훈 (2010).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의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1), 149-173.
- Baldry, A. C. (2003). Bullying in schools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7, 713-732.
- Cicchetti, D., & Carlson, V. (1989).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evas, C. A., Finkelhor, D., Clifford, C., Ormrod, R. K., & Turner, H. A. (2010). Psychological distress as a risk factor for re-victimization in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4, 235-243.
- Duncan, D. (1999).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Maltreatment*, 4(1), 45-55.
- Elliott, A. N., Alexander, A. A., Pierce, T. W., & Richmond, J. M. (2009). Childhood victimization, poly-victimiz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in women. *Child Maltreatment*, 1(4), 330-343.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 7-26.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olt, M.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4, 316-329.
- Finkelhor, D., Shattuck, A., Turner, H. A., Ormrod, R., & Hamby, S. L. (2011). Polyvictimization in development context.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Trauma*, 4, 291-300.
- Ford, J. D., Elhai, J. D., Connor, D. F., & Frueh, B. C. (2010). Poly-victimization and risk of posttraumatic,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 545-552.
- Gustafsson, P. E., Nilsson, D., & Svedin, C. G. (2009). Polytraumatiza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8(5), 274-283.
- Holt, M. K., Finkelhor, D., & Kantor, G. K. (2007). Multiple victimization experiences of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Abuse & Neglect*, 31, 503-515.

- Hong, J. S., & Espelage, D. L. (2012). A review of research on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An ecological system 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 311-322.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Lereya, S. T., Samara, M., & Wolke, D. (2013). Parenting behavior and the risk of becoming a victim and a bully/victim: A meta-analysis study. *Child Abuse & Neglect, 37*(12), 1091-1108.
- Manly, J. T., Kim, J. E., Rogosch, F. A., & Cicchetti, D. (2001). Dimensions of child mal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Con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ing and sub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759-782.
- Mannarino, A. P., & Cohen, I. A. (1996). Abuse-related attributions and perceptions, general attributions, and locus of control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2), 162-180.
- Rigby, K. (2000).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school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ce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3*, 57-68.
- Ryan, A. M. (2001). The peer group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young adolesc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2*(4), 1135-1150.
- Saunders, B. E. (2003). Understanding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oward an integration of overlapping fiel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356-376.
- Scannapieco, M., & Connell-Carrick, K. (2005). *Understanding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rtz, D., Dodge, K. A., & Cow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and Child Psychology, 30*, 349-363.

- Ttofi, M. M., & Farrington, D. P. (2008). Bullying: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and the importance of defiance theory in explanation and prevention. *Victims and Offenders*, 3, 289-312.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10). Poly-civ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 Unnever, J. D., & Cornell, D. G. (2004). Middle school victims of bullying: Who reports being bullied?. *Aggressive Behavior*, 30, 373-388.
- Wordes, M., & Nunez, M. (2002). Our vulnerable teenagers: Their victimization, its consequences, and direc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Retrieved March 9, 2014, from http://www.victimsofcrime.org/docs/Documents/teen_victim_report.pdf?sfvrsn=0.

ABSTRACT

Adolescents and their experience of victimization at home and at school

Lee, Inseon* · Choi, Jihyun**

Research on adolescents exposed to abuse and violence in Korea has focused on separate categories of experiences, 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ose who experience multiple forms of victimization at home, school, and/or within their community. Adolescents exposed to multiple forms of victimization are likely to suffer from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distress than those who experience only one form of victimization repeatedly or chronically.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nderstand the prevalence of multiple victimization and its adverse effects on youth development. Using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this study examined the prevalence of abuse at home and peer victimization at school, risk factors for re-victimization, and the effects of multiple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Those exposed to victimization both at home and at school reported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symptoms.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negligent parenting styles all helped to explain high risk factors for multiple victimization at home and at school.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multiple victimization, revictimizatio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peer victimization

투고일 : 2014. 6. 9, 심사일 : 2014. 8. 1, 심사완료일 : 2014. 8. 11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irst author

** Yonsei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zium0113@hanmail.net